安岳3號墳 被葬者 논쟁에 대하여

—冬壽墓說과 美川王陵 說을 中心으로—

金 貞 培

I

1949년 6월 27일 발견된 安岳 3號墳은 高句麗의 古墳硏究뿐만 아니라 古代 우리나라의 墓制를 體系化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특히 3號墳의 墨書銘文은 일단 永和 13년이라는 絶對年代를 갖고있으므로 高句麗 墓制를 연구하는데 하나의 기준점을 제공하고 있다.[1] 이 年代는 壁畵古墳에서 나왔다는데 더 큰 의의가 있으며 따라서 벽화변천의 年代를 측정하는데 더없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좁게는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壁畵古墳의 변천을 알수있게 하지만 넓게는 高句麗 古墳編年내지는 三國時代의 古墳硏究에도 큰 도움을 주고있다.

이와같이 귀중한 발굴자료가 北韓에서 이루어졌으나 韓國戰爭(6.25)으로 그 전모를 알수가 없었다. 물론 초기에 이를 연구발표한 北韓學界의 成果도 만족할만한 것이 못되었다는 것은 뒤에 나온 글들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古墳의 價値가 막중하다는 것은 北韓은 물론 中共, 日本, 우리나라 學者들도 인정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자료의 入手가 可能할 때는 언제던지 이를 發表하여 왔던 것이다.[2] 우리나라에서는 이 發掘에 參與하였다는 蔡秉瑞에 의하여 一部가 발표된바 있었다.[3] 그러나 두편의 논문형식으로 나온 내용은 거의가 모두 사실의 묘사에 그치고 있다. 더우기 被葬者인 墓의 主人公에 관하여는 墨書銘文에 의거하여 冬壽墓라고 간단히 結論을 내린바 있다.[4] 이러한 경향은 일찍이 北韓에서도 발굴 직후부터 冬壽墓로 간주되어 온바 있었다. 그뒤에 1960년대에 들어와서 北韓에서는 이 冬壽墓說에 대한 批判論이 대두하여 논전이 일어났으며 결국 美川王陵說이 유력한 견해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위와같은 일련의 學界움직임을 즉시 알수가 없으나 海外旅行중에 틈틈히 초독하는 자료에 의거해서 종합할수가 있게 되었다. 관심있는 학자에 따라서는 美川王陵說의 傳聞을 旅行中에 들을 수 있고 또 그러한 報告書가 있다는 것을 간단 하게 밝히고 있지만[5] 全體的인 윤곽을 잡을 수 있는 논쟁의 과정은 아직도 소개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筆者는 제한된 자료위에서 논쟁사적 입장으로 간략하게 이를 소개하려고 한다. 그러나 사실의 구체적

1) 朱榮憲, 1977. 《高句麗の 壁畵古墳》 16-17.
2) 李弘稙, 1959. 〈紹介의 말〉 《亞細亞硏究》 Vol. Ⅱ, No. 2, 109~110. 蔡秉瑞의 發掘手錄 앞에다 安岳古墳의 硏究경위를 간단하게 소개한 것이다.
3) 蔡秉瑞, 1959. 〈安岳近傍壁畵古墳發掘手錄〉 《亞細亞硏究》 Vol. Ⅱ, No. 2, 111-126. 1967. 〈安岳地方의 壁畵古墳〉 《白山學報》 2, 1-64.
4) 蔡秉瑞, 1967. 〈同上論文〉 63.
5) 金元龍, 1977. 《韓國考古學槪說》 141.

묘사는 이를 가급적 피하려고 한다. 그것은 墓의 主人公의 규명이 더 한층 우리의 관심을 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墓의 構造的 形式만을 비교하였기 때문에 여타의 歷史解釋이 중요함에도 우리는 이 問題에 관심을 집중하지 않은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 學界에는 冬壽墓說이 소개되어 있을 뿐이며 그것도 구체적인 방증자료와 체계적인 논술로 엮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美川王陵說의 근거도 고찰하므로써 兩說의 타당성을 비교하여 보다 合理的인 해석에 귀를 기우려야 될 것 같다.

Ⅱ

安岳 3號墳의 主人公을 해명하기 위하여는 古墳의 구조형식, 壁畵의 內容, 墨書銘文, 그리고 文獻史料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무덤은 구릉의 옆을 파고 묘실이 半地下에 구축되도록 하였다. 墓室은, 羨室, 前室, 前室東西의 側室, 後室, 回廊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墓室의 천장은 高句麗 封土墳에서 흔히 볼수 있는 고임천장이다. 여러 墓室중에서 羨室, 前室, 前室東西의 側室, 後室등의 천장은 평행삼각형의 고임천장으로 되어 있다. 이 墓의 壁畵는 벽과 천장에 그려있는 바 이들의 배치상태는 다음과 같다.

羨室에는 墓主의 住居를 지키는 衛兵이 있고 前室에는 墓主를 지키는 武人, 儀仗隊, 鼓吹樂隊, 씨름군들이 그려있다. 前室의 東쪽 側室에는 일상생활의 여러 모습을 알 수 있게 하는 부엌, 우물, 방아간, 푸주간, 차고, 마구간, 외양간 등이 그려 있고, 西쪽 側室에는 墓主 夫婦가 帳房에서 생활하는 화려한 장면이 그려져 있다. 後室에는 歌舞圖가 그려있고, 回廊에는 墓主의 행차와 관련한 거대한 行列圖가 있다. 천정 및 돌기등에는 해와 달, 雲紋, 蓮花紋, 鬼面등을 그렸다. 安岳 3號墳의 壁畵內容의 검토는 뒤에서 다시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이지만 이것은 종래 아래의 墨書銘文과 밀접한 관계라는 전제 밑에서 兩者를 지나치게 밀착시켜 연구하여 왔던 것이다. 墨書銘文은 主人 夫婦의 帳房生活圖가 그려 있는 前室西側室의 입구에 쓰여 있다. 즉 입구의 우쪽에는 守門將격의 武人이 劍仗을 짚고 서있고 武人들의 옆에는 그의 職任이 將下督임을 나타내는 글이 있다.

永和十三年十月戊子朔廿六日
癸丑使持節都督諸軍事
平東將軍護撫夷校尉樂浪
囲昌黎玄菟帶方太守都
鄕侯幽州遼東平郭
都鄕敬上里冬壽字
口安年六十九夢官

이 墨書가 安岳 3號墳을 冬壽墓로 지목하게 되는데 결정적 구실을 한 자료이다. 위의 뜻은 대략 다음과 같다.

永和 13년(357) 10월 戊子朔 26일 癸丑에 使持節都督 諸軍事 平東將軍 護撫夷 校尉이고, 樂浪相 昌黎 玄菟 帶方太守요 都鄕侯인 幽州 遼東의 平郭縣 시내 敬上里 출신인 冬壽는 字가 口安으

로 나이 69세에 벼슬하다 죽었다.

이 墨書는 左右의 두 帳下督 가운데 왼쪽에 있는 帳下督위에 기록된 것이다. 따라서 墨書는 위의 자료만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그뒤 安岳 3號墳의 壁畵描寫중에 오른쪽에 있는 帳下督의 머리 윗부분에도 종래 알려진 冬壽에 관한 銘文외에 또다른 墨書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이 墨書는 거의 지워져 버려 興, 濂字등을 제외하면 전혀 알수가 없으며 흘러내린 먹물이 밑의 人物圖와 壁面을 덮었다. 여하튼 左의 양쪽의 帳下督위에 모두 墨書銘文이 있었던 것이다.

Ⅲ

우리는 지금까지 매우 간략하게 墓의 構造, 壁畵의 內容과 배치상태, 그리고 墨書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먼저 安岳 3號墳 발견이래 끈질기게 제기되어온 冬壽墓說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3號墳 발견후 墨書銘을 제일 먼저 소개한 것은 都宥浩였고, 冬壽墓說을 가장 체계있게 논술한 것은 김용준으로 알려지고[6] 있다. 그후 1956년 2월 23일 考古學 및 民俗學硏究所에서 〈安岳 第3號墳의 年代와 被葬者에 대한 學術討論會〉가 개최된바 있다. 이때 황철산, 황욱등이 역시 冬壽墓說을 지지하였고, 晋書, 資治通鑑등의 기록에 의하여 김광진도 冬壽墓說을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7] 있다. 이밖에도 中共學者들이 대체로 冬壽墓說을 발표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간략한 論文을 통하여 살필수가 있다.[8] 冬壽墓說의 근거는 아래와 같은 몇가지 이유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첫째, 冬壽墓說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墨書銘文이라고 볼것이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하였지만 前室 西側室 왼쪽벽 帳下督 위에 기록된 墨書銘은 분명히 冬壽임을 표시하고 있다. 바로 이점을 들어 安岳 3號墳이 冬壽墓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여기에 기록된 冬壽는 資治通鑑에 보이는 佟壽와 同一 人物임은 누구나가 인정하는 바다. 資治通鑑에 보면[9] 冬壽는 前燕 慕容皝의 부하로 帳下의 職에 있었다. 그뒤에 冬壽는 慕容皝의 아우 慕容仁에게 넘어가 慕容皝과 싸우다가 仁이 패하게 되자 결국 高句麗로 달아났던 것이다. 高句麗에 온지 22년만에 그는 벼슬을 살다가 죽었으며 墨書銘의 年代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永和 13년(357)이 바로 그 해에 해당 된다. 冬壽墓說을 주장하는 이들에게는 일차적으로 墨書銘은 資治通鑑등의 史料가 신빙성이 있으므로 더욱 탄탄한 증거가 되었다.

둘째, 西側室 西쪽벽에 있는 주인공 侍衛들의 官職을 나타내 주는 記室, 小史, 省事, 門下拜등의 職名과 西側室 入口의 좌우 수문장격인 인물들의 직함인 帳下督이라는 職名이 문제가 된다. 위의 職名들은 모두 朱書로 되어 있으며 晋書職官志에 의하면 이들이 太守級이하의 직명으로 朝廷의 職名이 아니라고 보는데서 冬壽墓說에 중요 자료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墨書銘文과 이들 職名들이 中國

6) 전주농, 1959.〈안악 하무덤 3호분에 대하여 ——그 발견 10주년을 기념하여——《문화유산》5.15
7) 전주농, 1959.〈同上論文〉15 註 1 參照
8) 宿 白, 1952.〈朝鮮安岳所發見的冬壽墓〉《文物參攷資料》1.
楊 泓, 〈高句麗壁畵石墓〉《文物參攷資料》4.
洪淸玉, 1959.〈關于冬壽墓的發現和硏究〉《考古》1.
9) 資治通鑑 卷 九十五 晋紀十七 顯宗成皇帝 中之上 咸康二年 春正月條

史書와 一致한다는 사실에서 한층 논리적인 체계를 이루게 하였다.

셋째, 墓制의 관점에서 安岳 3號墳은 高句麗 墓制이기 보다는 遼陽의 石槨, 三道壕, 棒台子屯, 望都의 壁畵墓와 관련을 갖으며, 또한 沂南의 古畵像石墓와 통한다는 것이다,

넷째, 古墳의 壁畵에 나타나는 주인공과 측근들의 복장과 기타 인물도가 高句麗의 양식이 아니고 中國式의 것이라는데 있다. 주인공등의 복장은 望都 漢墓, 遼陽의 壁畵고분과 유사한 中國의 것이며 기타 인물도 등도 漢代 "中國복식과 다르고 高句麗복식과도 다른 특이한 복식"이라면서[10] 김용준은 鮮卑族의 것과 연관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11]

다섯째, 방대하고 화려한 이 고분이 거의 王陵을 능가할수 있는 것은 冬壽가 故國原王의 우대를 받고 있었으므로 中央에서 떨어진 安岳지방에 封建領主격의 세력을 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安岳地方이 故國原王陵을 둘수 없는 지역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위에서 간단하게 언급한 항목들이 우세하게 冬壽墓說을 이끌어온 論點들이라고 보아진다. 이와같은 北韓에서의 의견 제시외에도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견해로 蔡秉瑞의 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아래와 같은 結論을 맺은 바 있다. "편의상 3號墳부터 이야기 한다면 이 墓의 경우는 墓誌가 있는 이상 被葬者는 어디까지나 墓誌의 人物, 즉 冬壽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이 點은 壁畵人物들의 服飾이나 官職名을 보더라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墓는 이미 여러 學者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墓室의 構造形式도 中國石室墓의 制樣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壁畵역시 體制와 主題에 있어서 中國의 古墳壁畵와 다를 것이 없다. 말하자면 이 墓는 中國墓制에 의한, 그리고 中國 古墳壁畵의 傳統을 그대로 계승한 中國人의 壁畵古墳인 것이다."[12]

이 외에도 그는 1, 2號墳도 中國人, 즉 帶方郡 故地의 中國系 住民들에 의하여 구축된 壁畵古墳으로 간주하였다. 이처럼 冬壽墓說은 墨書銘이나 壁畵內容, 墓制등을 한결같이 中國과 연관시켜 해석한 결과들이 學界에 소개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冬壽墓說이 지배적인 견해인듯 여겨져 왔으나 그 뒤에 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행해지면서 강한 의문점들이 제기되기 시작 하였다. 따라서 冬壽墓說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면서 安岳 3號墳이 王陵이라는 새로운 의견이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아래에서는 그와같은 批判論을 소개하면서 아울러 3號墳이 王陵, 더 구체적으로는 美川王陵이라는 견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Ⅳ

冬壽墓說이 부인되고 王陵說이 대두된 것은 앞에서 언급한바 있는 1953년 2월 23일의 토론회에서였다. 물론 당시에 王陵說이 體系化된 것은 아니었지만 채희국, 박윤원, 김일출 등이 王陵說을 주장하였다. 채희국은 墓의 실제와 당시의 社會經濟的 상황을 연결시켰고, 박윤원은 王陵說중에서도 美

10) 김용준, 1957. 〈안악 3호분의 년대와 그 주인공에 대하여〉《문화유산》 3, 18.
전주농〈前揭論文〉에서 再引用.
11) 전주농 1959, 〈同上論文〉 17.
12) 蔡秉瑞, 1967,〈前揭論文〉 63.

川王陵이라고 추정하였다.[13] 전주농, 주영헌도 美川王陵說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들의 논고는 아래에서 살피게 될것이다. 일반적으로 王陵說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冬壽에 관한 墨書銘이 墓의 主人公과 과연 연결될 수 있는가에 커다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우선 墨書銘의 위치는 그 바로 아래에 있는 帳下督과 관계되는 글이지 主人公과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安岳 3號墳을 故國原王陵으로 보고 冬壽가 여기에 倍葬된 人物이라고 보기도 하였다.[14] 또 行列圖만 하여도 규모가 王陵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과 또 墓의 웅대함이 일개 亡命客인 冬壽에게는 결코 합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冬壽墓說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이를 비판하고 나선 글은 전주농의 논문이라고 볼것이다. 그는 여러각도에서 이 문제에 비판을 가하고 있다.

첫째, 墨書銘으로 말미암아 3號墳이 冬壽墓라는 것은 매우 피상적인 고찰이라는 것이다. 이 墨書는 그 자체로서 資治通鑑등에 나타나는 冬壽임이 분명하지만 이 墨書가 墓의 主人公을 대변하는 글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흔히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이 墨書는 결코 墓誌銘이 될 수가 없으며 더구나 형식에 있어서도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는 것이다. 만약에 이 墨書가 主人公을 가리키는 글이라면 마땅히 墨書는 主人公의 초상이 그려져 있는 벽면에 있어야 하는데 우선 위치가 그러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主人公의 위치에서 떨어져 있는 西側室의 왼쪽 벽면에 있는 守門將 격의 帳下督이란 인물위에 쓰여져 있다. 그러므로 이 사실에서 얻을수 있는 것은 이 墨書가 帳下督과 관련되는 글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西側室에는 넓은 공간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에 冬壽를 장사지낸 뒤에 거기에다 글을 썼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반박하고 있다. 설사 그 묘가 冬壽의 것이라 하여도 장소로서는 부적당한 곳이며 더구나 王陵이라면 더우기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일부에서 논한바와 같이 故國原王陵이고 冬壽는 그곳에 倍葬 되었으므로 墨書가 그곳에 쓰여진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응당 故國原王의 글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故國原王과의 倍葬問題는 合理性이 결여된 것이 故國原王이 冬壽보다 15년이나 뒤에 사망하였는데 어떻게 冬壽의 시체가 王陵에 15년뒤에 다시 들어갈수 있는가 하는 점에 있다. 그렇지 않다면 生前에 만들어 놓은 故國原王의 陵에 冬壽가 15년 먼저 매장되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것은 더욱더 不合理하다. 아무리 故國原王의 忠臣이라 하더라도 王보다 臣下가 먼저 매장되고 또 墨書가 쓰여진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이점은 冬壽墓說을 주장하는 김용준조차도 지적하는 점이다.[15] 또한 帳下督위에 쓰여진 墨書는 그 벽면에 겨우 알맞게 쓴것에 불과하므로 墨書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과장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전주농은 이 墨書를 일종의 落書로 보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하여 다음의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墨書가 결코 墓誌銘이 될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선 형식에서 그와같은 墓誌銘은 없을 뿐 아니라 거대하고 화려한 墓에 王이던 冬壽던간에 그와 같이 조잡한 글을 쓸리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廣開土大王 碑文

13) 전주농, 1959. 〈前揭論文〉 17.
14) 《歷史科學》 5.98. 전주농 논문에서 再引用.
15) 전주농, 1959. 〈同上論文〉 20.

이나 牟頭婁塚의 묘지를 보더라도 매우 정중하고 단정한 정성을 드려 쓴것을 볼수가 있는데 墓안에 있는 墨書를 그대로 墓誌銘으로 본다는데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墨書는 帳下督위의 공간에 알맞게 썼을뿐 글자가 일정하게 쓴것이 아니라 크고 작게 쓰였다는 사실이다. 다만 첫字인 永字에서 마지막 字인 官字에 이르기까지 帳下督이란 인물의 머리위에 가지런하게 밑의 선이 가게 썼다는 점 이외에는 어떠한 계획도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더 커다란 문제는 〈使持節〉의 節字를 처음에는 都字로 잘못 썼다가 지우지도 않고 그 글자의 획 위에 어물어물 節字로 다시 고치고 그저 만족하였다는 사실은 主人公의 초상화와 비교할때에 도저히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活字로만 墨書銘을 보았던 점에 비하면 字形의 상태를 설명한 부분들은 매우 흥미가 있어 보인다.

둘째, 冬壽墓說에서 중요한 근거가 되었던 主人公侍衛들의 벼슬을 나타내는 記室, 小史, 省事, 帳下督 같은 職名이 王이 아닌 太守級이하에만 있다는 說에 대한 批判이다. 종래에는 墓의 主人公을 冬壽로보고 侍衛들의 職名이 大守級이하의 屬官이라 보고 晋書의 職官志의 사실을 들어 이를 論證하여 왔다. 그런데 3號墳에 나타난 記室, 小史등의 職名이 史料를 검토한 결과 晋書職官志에 나타나는 것과 꼭 일치하지 않으며 오히려 諸王, 大宦官등의 屬僚로도 나타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만약에 이職名들이 郡國의 屬官職名으로만 나온다면 冬壽墓의 證據자료로써 의미가 있다. 그러나 郡國條뿐만 아니라 諸王, 三公등의 條를 보면 오히려 그곳의 職名과 가깝게 나타난다. 그가 제시한 圖表를 보면 아래와 같다.

3 號 墳	晋書職官志 州, 郡國條
記 室	記室書佐(州), 記室史, 主記室, 主記室史
小 史	幹小史, 小史廷掾, 小史書佐, 獄小史, 循行小史
門 下 拜	門下史, 門下書佐
省 事	
帳 下 督	

우선 위의 圖表에서 알 수 있듯이 3號墳의 記室 小史등의 職名은 郡國條등에서는 두字의 名稱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서로 다른 점이다. 그리고 古墳의 職名에서는 비교적 重職이라는 省事 帳下督 같은 것은 오히려 職官志 郡國條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冬壽墓說에서 주장하는 侍衛하는 사람들의 職名이 大守級이하의 직명으로 晋書 職官志를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차라리 郡國條보다는 諸王, 三公등의 大宦官들의 屬僚職名과 대비하여 보는 것이 필요하다.

3 號 墳	晋書職官志, 諸王, 三公, 大夫, 大將軍條
記 室	記室, 記室督, 主記, 閤下記室
省 事	省事, 省事史, 省事吏, 省事令史
門 下 拜	門下史, 門下督, 門下都督, 門下書佐, 門下書吏, 門下張
帳 下 督	帳下都督
小 史	

위의 表를 보면 3號墳에 나오는 職名이 諸王等의 大臣官 屬僚에 등장하는 官職과 같다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3號墳의 職名을 구태여 잘 맞지도 않는 郡太守의 屬官 職名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諸王등의 條에 나오는 職名으로 이해하면 어려움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墓의 主人公이 太守級의 人物이 아니라 王陵이라고 보는 이유가 이 사실만 보아도 가능한 것이다. 지금까지 冬壽墓說에서 주장하는 墨書銘과 이 職名은 지나치게 冬壽라는 특정人物을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高句麗 官制에는 특히 內侍府의 경우 中國의 官制를 많이 채용하였으며 다른 職名이 그러하듯 여기의 帳下督도 中國과의 對外的인 일단의 표시라고 보고 있다. 冬壽가 帳下의 職任을 맡았던 것은 주지하는 바이므로 王陵에 나타난 職名은 십분 이해가 되는 것이다.

셋째, 安岳 3號墳의 거대한 築造物은 결코 王이 아니면 만들수 없는 규모이다. 아무리 故國原王의 충신이라 하더라도 王陵을 능가하는 墓를 冬壽가 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흔히 말하듯이 安岳地方의 領主格인 冬壽가 이 정도의 墳墓는 능히 축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추측일 뿐 이라는 것이다. 또 遼陽의 石墓와 關係를 지운다던가, 또는 黃海道 지방등에 남아있는 漢人들을 무마하기 위하여 冬壽를 보냈다는 것도 어디까지나 상상일 뿐이다. 그러므로 3號墳은 전형적인 高句麗의 墓이고 冬壽의 亡命과 관련하여 외부로 부터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넷째로 王陵인 이유는 主人公의 수레앞에 〈聖上幡〉이라는 검은 기를 발견하게 되는바 이 글자가 바로 王陵임을 증명한다는 것이다. 원래 발굴당시에도 〈聖上幡〉의 〈聖〉字가 문제가 되었었다. 당시에 참관한 사람들도 聖字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어떤 글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聖字가 아니라 하여도 記室, 聖事, 門下拜같은 것을 보면 太守級이 아님이 분명한 것이다. 여기에 관하여 전주농은 1949년 9월에 聖上幡 字를 발견, 보고까지 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6] 처음에 都宥浩는 〈聖上幡〉 3字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고, 김용준은 聖字일 것으로 추론하였던 것이다. 그후 이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그가 나갔을 때에는 '전혀 알수 없는 글자'로 본 모양이나 發掘報告를 위해 현지에 나간 사람들은 聖字로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聖上幡〉이란 王을 지칭하는 것이며 결코 冬壽에게는 적용될수 없는 말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王에 국한되어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冬壽에게 이말은 사용되어질 수 없는 단어임이 분명하다.

다섯째, 壁畵에 나타나는 人物畵와 鹵簿大行列圖에서 王陵임이 틀림없다는 단서가 있다는 점이다. 西側室의 벽화에 보면 主人公의 좌우에 侍立하고 있는 諸臣들이 모두 笏을 잡고 있는데 이것은 王과 臣下와의 位階가 정연함을 알려준다고 보겠다. 그 가운데 記室은 바른 손에 붓을쥐고 笏위에 무엇을 쓰려는 모습이고 우측의 聖事는 무릎을 꾸부려 절반을 엎드린 자세로 줄간을 친 서면을 두손으로 잡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敎命과 관계가 깊은 장면을 표시한 것이다.

여섯째, 鹵簿大行列圖가 규모에서 매우 크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王을 호위하여 따르는 文武諸臣들의 服制로 보아도 王의 儀式절차라는 것이다. 行列圖가 부분적으로 없어진 곳이 있어 前半部만 남아 있으나 여기에 등장하는 人物들이 250명이 넘는 다는 것이다.[17] 前半部에 등장하는 人員이 이정

16) 전주농 1959, 〈同上論文〉 26.
17) 전주농 1959, 〈同上論文〉 28.

도이므로 없어진 後半部까지 고려한다면 行列圖에 등장하는 인원의 수는 엄청난 수자이다. 棒台子屯의 壁畵도 큰것이지만 173명으로 나타나는 것을 본다면 이 行列圖의 규모는 매우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行列圖 가운데는 御馬 한 필이 盛裝한 채 두사람의 馬夫와 함께 있는 장면도 있고 그 앞으로는 主人 公侍衛들과 동일한 服制로 홀을 잡거나 의장기를 잡고 모두 말을 타고 행진하는 20명의 文官 대열도 있다. 이들이 모두 冠을 쓴것은 望都 漢墓와 같다. 여기서 비교하여 말한다면 遼陽지방의 벽화에서는 冠을 쓴 人物은 없으며 모두 幘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곱째, 벽화에 나타나는 鼓吹樂隊의 규모가 특색이며 前半部에 나타나는 人員만도 약 120명이므로 後半部까지 합치면 200여명이 넘을 것이라는 점이다. 太大角干 金庾信이 王室로부터 받은 鼓吹侍人이 100명임을 고려하면 鼓吹樂隊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이 외에도 亞旗, 纛旗등도 鹵簿行列의 의장구로 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규모의 行列은 冬壽墓로 보기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여덟째, 主人公과 夫人의 服制인데 主人公의 冠이 侍衛하는 文武의 관리들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主人公의 것은 높은 黑幘의 뒤로 우뚝솟은 흰색의 덧관을 씌운 모습이다. 벽화에 보면 흰 부분은 흰 안료를 칠해서 흰색을 뚜렷하게 칠하였다는 것이다. 文獻에 보이는 高句麗의 冠帽制에서 大加 主簿는 모두 뒤가 없는 幘을 썼고 貴族用으로는 紫羅로 만든 蘇骨이 있으며 上下 일반용으로 통용된 折風冠이 있는데 오직 王만은 白羅冠을 썼다고 되어있다. 벽화에 보이는 冠이 바로 文獻에 나타나는 白羅冠인 것이다. 王의 冠은 뒤가없는 黑幘과 白羅冠을 맞춘것으로 黑幘은 貴族, 특히 武官들이 쓰는것과 同一한 것이다.

다음에 衣服을 본다면 合衽의 闊袖袍를 입고 있다. 바탕색이 紫色이고 그위에 붉고, 넓적한 선을 쳐서 주름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 合衽袍에서 色이 紫色으로 되어있는 것이 주목된다. 紫色은 예컨데 百濟王의 의복이 大袖紫袍이기 때문에 비교하면 흥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高句麗의 古墳에서도 紫色의 大袖袍를 입은 墓의 主人公이 많이 있어 높은 身分의 祖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아울러 언급해야 할것은 主人公의 夫人의 머리모습이다. 夫人의 結髮뿐만아니라 壁畵에 나타나는 女人들의 머리가 거의 모두高髮인것은 唐代 女人들의 머리모습과 흡사하다. 이것은 王室에서 사회적 지위에 合當한 장식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유사한 양식이 있다고 하여 中國人과 연결시키는 것이 不合理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의 논조에서 전주농은 安岳 3號墳이 冬壽墓가 아니고 高句麗의 王陵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소위 墨書銘은 帳下督을 지낸 冬壽의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위에 墨書가 기록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3號墳이 王陵임에 틀림없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王陵이라고는 지적하지 않고 있다. 다만 3號墳의 主人公인 高句麗의 王은 冬壽가 섬기던 王이라고 볼근거가 없다고 비치므로써 故國原王說을 간접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뒤에 나온 논문에서는 결국 美川王陵說을 발표하고 있는바 이것은 뒤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다.

V

安岳 3號墳을 墓制의 입장에서 더 자세하게 논증한 것은 朱榮憲의 논문[18]이라고 보겠다. 이제 그 내용의 요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에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3號墳은 高句麗古墳 가운데 가장 광대하고 화려하며 墨書年代가 있어 古墳硏究에 기점을 이루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高句麗 古墳은 약40여기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가운데서 3號墳과 構造形式에서 똑같은 것은 10기가 되고 감이 있어서 8號墳과 구조형식에서 유사한 것이 13기이다. 이번에는 壁畵의 內容에서 3號墳과 같은 것은 8기가 되는데 高句麗古墳의 壁畵내용에는 人物 風俗을 그린 무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여기의 무덤중에서 人物의 服飾등이 安岳 3號墳과 공통된 것이 半이상을 차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같은 사실을 감안하면 결국 40여기나 되는 高句麗 古墳가운데서 古墳의 構造形式, 壁畵의 內容, 人物의 服飾등에서 安岳 3號墳과 공통성을 갖고있는 무덤이 10여기에[19] 달하게 된다. 이것은 安岳 3號墳이 外部로 부터 흘러들어온 것이 아니고 高句麗古墳의 한 주류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제 古墳가운데서 構造形式上 安岳 3號墳과 같은 무덤으로는 樂水里 무덤, 龕神 무덤, 遼東城 무덤, 平壤驛前무덤, 台城里 제1호 무덤, 蓮花무덤, 高山里 제7호 및 제9호무덤, 龍岡大墓등이 있다. 그리고 墓室에 龕이있어 安岳號墳과 構造形式에서 공통한 것으로는 台城里 제2호 무덤, 伏獅里무덤, 通構 제 20호무덤등이 있다. 위의 무덤 가운데서도 樂水里무덤, 遼東城무덤, 高山里 제7, 제9호 무덤을 제외한 나머지 무덤들은 壁畵의 內容上으로 安岳 3號墳과 같으며 그 가운데 4기의 무덤은 墓室構造와 壁畵內容 및 配置狀態에서 安岳 3號墳과 같다.

다음에 高句麗의 壁畵무덤은 壁畵의 內容에 따라 時代의 변천을 그을수 있다. 이 순서를 보면 人物風俗圖, 人物風俗圖와 四神圖, 그리고 四神圖무덤으로 변천하였다. 또 墓室의 변천을 보면 單室에서 二室, 그리고 龕, 側室이 있는 무덤으로 변하여 갔다. 그러므로 安岳 3號墳은 台城里 1호, 蓮花무덤, 龕神무덤, 平壤驛前무덤과 같이 人物風俗圖를 그린 龕, 또는 側室이 있는 墳墓의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3號墳에는 墨書銘에 의해서 永和 13년(357)이라는 絶對年代가 있어 古墳編年上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이 年代가 알려주는 바와 같이 安岳 3號墳은 人物風俗圖를 갖고 있으면서 龕側室이 있는 비교적 이른 시기의 墓라는 것은 이제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앞에서 우리는 安岳 3號墳과 유사한 몇기의 壁畵古墳들을 일별한바 있다. 더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墓室의 크기를 비교하여 볼때 伏獅里 무덤과 台城里 제2號의 墓室은 安岳 3號墳 墓室의 1/4밖에 안되고 龕神무덤, 樂水里무덤, 台城里 제1호의 墓室은 安岳 3號에 비하여 1/3이며, 平壤驛前무덤, 蓮花무덤은 安岳 3號의 약 1/2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실제로 古墳의 墓室만 비교하여도 여타의 墓室보다 安岳 3號墳은 2배내지 3~4배의 크기로 되어 있다. 이같은 크기의 墓를 구출할 수 있는 것은 王의 位置에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며, 벽화의 내용을 검토하면 더욱 被葬者의 身

18) 朱榮憲. 1963, 〈안악 제3호무덤의 피장자에 대하여〉《고고민속》 2.
19) 朱榮憲. 1963, 〈同上論文〉 3.

分이 王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벽화의 그림은 身分에 따라 크기를 달리하였다. 예컨데 主人에게 보고하거나 명령을 받아 笏에 기록하는 記室과 聖事는 門下拜 小史등에 비하여 배로 그렸다는 점이다. 3號墳의 主人公은 결국 諸王, 大將軍의 屬官들인 記室, 聖事, 帳下督등의 시위를 받고 있으므로 결국 王의 위치에 있는 사람임이 틀림없는 것이다.

두번째로 지적할 것은 鹵簿行列圖이다. 高句麗 壁畵무덤 가운데는 行列圖가 있는 古墳이 몇기가 있다. 이 가운데서 安岳 3號墳의 것을 제외하면 가장 큰 규모의 行列圖는 樂水里 무덤의 行列圖이다. 樂水里 壁畵무덤의 行列圖에서 나오는 人員數는 前倍 中倍 後倍를 모두 합하여 80여명이며 이점에 비할때 安岳 3號墳은 엄청난 규모이다. 安岳 3號墳은 前倍와 中倍만이 있을뿐 전체는 알수가 없다. 그런데 樂水里의 行列圖는 규모는 적으나 전체 行列圖의 構成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양자를 비교하면 安岳 3號墳의 人員數를 대략은 계산해 낼 수가 있다. 樂水里 古墳의 後倍 인원수는 약 35명으로 전체 인원 80여명에 대하여 거의 반수에 해당하고 있다. 이것은 安岳 3號墳에도 적용시킬 수가 있는데 中倍까지의 인원수가 약 2500명이므로 대략 500여명에 달하는 총인원수를 상정할수가 있다. 이만한 규모라면 이것은 도저히 冬壽의 墓라고 할수가 없으며 通典에 나타난 唐의 鹵簿에 一品이 약 500명이라는 것은 매우 흥미있는 수자라고 할것이다.

세번째로 지적할것은 主人公의 冠이 白羅冠으로 隋書 高句麗傳의 記錄과 잘 맞는다는 점이다.

네번째는 墨書銘이 자수와 글자의 크기가 서로 다르고 그대로 고쳐쓰는등 정중하게 쓰지 않은것을 보더라도 이것은 主人公의 墨書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墓室의 내부에 墨書를 쓴 경우가 몇개 있다. 安岳 3號墳, 牟頭婁 묘, 高山里 1호등이 그것이다. 牟頭婁 묘지는 800여자에 달하는 글을 線을 그어가며 정연하게 쓴 글이다. 高山里 제1호묘는 人物風俗畵와 四神圖를 그린 單室墓이다. 西壁에는 白虎를 그렸는데 白虎의 머리앞에 墨書를 썼다. 황색선으로 線을 그은 다음 墨書를 썼던 것이다. 위와 같은 예를 본다면 高句麗에서 墓室에 墨書를 쓸때는 뚜렷한 위치에 선을 긋고 정연하게 글을 써내려 갔던 것이다. 安岳 3號墳의 墨書는 이러한 예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또 무성의하기가 비할바 없다. 墨書에 나타난데로 冬壽의 墨書라하여도 그의 官職을 보면 그는 四品官이며 이를 唐代의 鹵簿制度에서 본다면 四品官의 鹵簿에는 270여명만이 참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大行列圖는 결코 冬壽의 것이 될수가 없는 것이다. 이점에서 근거해 보면 安岳 3號墳은 王陵이 될수 밖에 없다.

그러면 王陵이라고 할때 어느 王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그는 아래와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다.

安岳 3號墳이 冬壽墓가 아니라고 하여도 여기 王陵에 묻힌 主人公과 冬壽와는 인연이 있거나 冬壽가 墳墓의 築造에 관여한 까닭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冬壽는 故國原王 6년인 336년에 高句麗로 亡命하여 와서 22년간 벼슬살이 하다가 故國原王 27년인 357년에 죽었다. 그렇다면 冬壽는 故國原王과 일단 밀접한 관계가 있는 人物이다. 일반적으로 王陵같은 것은 生存時에 王들이 축조하는데 이 安岳 3號墳도 그러한 관점에 본다면 故國原王때 만들어졌다고 보아도 좋은 것이다. 그런데 故國原王에게는 몇가지 중대한 事件이 있음을 三國史記에서 찾아 보게 된다.

故國原王 12년 즉 342년에 燕의 慕容皝은 高句麗를 공격하였다. 丸都城을 유린한 후 故國原王의 어머니 周氏와 王妃를 사로잡고 父王의 무덤인 美川王陵을 도굴하고 시체를 가져갔다. 이것은 燕이

퇴각하면서 高句麗의 보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미리 취한 야만적인 행위이다. 高句麗가 34년에 燕의 공격을 받았으나 그보다 훨씬 전에 高句麗는 帶方郡을 쳐 없애고 黃海道의 땅을 차지한바 있었다. 더 南進하여서는 漢江까지 내려오게 되었다. 燕에게 丸都城이 유린되자 그후 高句麗는 서울을 平壤의 東黃城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전이 故國原王에게 있었으므로 王이 하여야 할 일은 父王인 美川王의 시체를 찾아와서 다시 墓를 쓰는 일이었다. 丸都城이 유린되고 父王의 시체를 잃은 것이 342년 11월이고 그뒤 美川王의 시체를 찾아온 것은 이듬해 2월이며 서울을 옮긴것은 7월이었다. 丸都에서 시체를 잃고 다시 시체를 찾아왔으나 故國原王으로서는 그곳에 墳墓를 조영할 수 없으므로 平壤에서 비교적 가까운 安岳등지에서 墓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安岳地方은 平壤에서 가깝고 새로 얻은 땅이므로 무덤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安岳地方에서 알려진 무덤이 安岳 3호, 1호, 2호와 伏獅里무덤등이 있는 것을 보면 그러한 사정을 다소 이해할 수가 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고려해야할 문제가 美川王의 무덤이라고 할때 故國原王의 무덤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는 일이다. 사실 冬壽와 故國原王과의 관계때문에 安岳 3호분의 故國原王說도 있었으나 故國原王의 무덤은 故國原에 있으므로 安岳에서 찾을수는 없는 일이다. 三國史記를 보면 平壤 還都이전에 사망한 王들의 이름에는 다음과 같이 故國이라는 이름이 자주 보이고 있다. 故國川王의 무덤은 故國川에 있고, 故國原王의 무덤은 故國原에, 故國壤王의 무덤은 故國壤에, 新大王의 무덤은 故國谷에, 西川王의 덤은 故國原에 있다. 따라서 故國原王의 무덤이 故國原에 있지 安岳地方이 아니라는 것은 납득이 가는 일이다. 高句麗의 서울이 國內城, 丸都城이었으므로 故國의 이름이 붙어 있는 王들의 墓들은 國內와 丸都에 있는 것이다. 故國原王을 一名 國岡上 王이라고 하는바 廣開土王의 이름도 國岡上 廣開土地 平安 好太王이다. 廣開土王의 무덤이 通溝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故國原王의 무덤도 그러한 입장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朱榮憲의 논문은 논지의 초점을 墓의 構造, 壁畵의 內容, 墨書등에 두고 冬壽墓說을 비판하고 安岳 3號墳이 美川王陵이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앞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美川王陵說을 처음으로 발설한 이가 박윤원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의 論旨도 뒤에서 간단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VI

우리는 앞에서 安岳 3號墳이 冬壽墓가 아니라 高句麗의 王陵이라는 전주농의 견해를 본바 있다. 이때 그는 王陵이라는 의견을 발표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王의 무덤이라고 꼬집어 이야기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면서 故國原王陵說은 배제하고 있었다. 그는 후에 다시 이에 대한 논고를 통하여 安岳 3號墳이 美川王陵이라는 견해를[20] 표명하였다. 前의 논문과는 달리 이번에는 주로 文獻的 立場을 더 說明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그가 美川王陵說을 주장하는 理由는 아래의 몇가지 사항이 될것 같다.

첫째, 冬壽에 관하여 쓴 墨書銘은 故國原王때 亡命온 冬壽에 관한 것은 틀림없으나 앞에서 말한데

20) 전주농, 1963. 〈다시 한번 안악의 왕릉을 논함〉《고고민속》 2.

로 安岳 3號墳은 冬壽의 것이 아니고 王陵임이 분명하다. 만약에 冬壽와 관계있는 故國原王의(331-371)무덤이라면 만사가 풀리는 문제지만 故國原王의 무덤이 通溝등지에 있으므로 이것은 다른 해석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三國史記에 나오는 故國原王 12년(342) 12월조에 燕의 侵入을 받았다는 文獻的 史料에서부터 이 문제가 풀려야 한다는 것이다. 故國原王 12년(342) 11월 이하에는 대개 아래와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① 1월에 燕의 침입으로 王母 周氏와 王妃가 불모로 잡히고

② 慕容皝이 美川王(300~331)의 무덤을 파서 시체를 가져갔으며

③ 다음해 2월 시체를 다시 찾아왔고

④ 그해 7월에 平壤의 東黃城으로 천도하였다.

위의 記事가 바로 美川王陵說을 풀어가는 자료가 된다고 보고 있다.

둘째, 故國原王이 재빠르게 하여야 할 일은 기막힌 치욕이 되는 父王 美川王의 시체를 찾아오는일이다. 高句麗를 위시하여 三國이 모두 그러하였듯이 喪禮는 매우 엄격하였으므로 國王으로서는 父王을 위하여 再葬을 서두루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平壤으로 遷都후에 王은 父王의 葬禮를 위해 墓를 만들지 않을 수 없었다. 燕나라에 의해 父王의 무덤과 시체가 수모를 겪은 것을 고려할때 이번에는 안전하고 다시는 천철을 밟지 않을 곳을 택하여야만 하였다.

셋째, 이번에 美川王의 시체를 安住시키는데 있어서는 美川王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을 葬地로서 택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美川王의 업적을 살려보면 그의 治世에서 가장 빛나고 두두러지는 일은 美川王 14~15년, 즉 313~314년에 樂浪帶方의 勢力을 우리나라에서 쫓아낸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歷史에서 뿐만 아니라 좁게는 高句麗의 對外發展에서 큰 계기를 이룬 업적에 속하는 일이다. 樂浪帶方의 故地를 점령함으로써 그 뒤를 이은 故國原王은 南쪽으로의 진출을 더욱 강화시킬수가 있었다. 따라서 美川王이 확보해 놓은 黃海道의 이 新天地가 美川王陵의 再葬을 위해서는 아주 적당한 장소가 되는 것이다. 故國原王이 安岳에서 墓를 구축한 것은 위와 같은 연유에서 취해진 것이다.

넷째, 위와같은 목적에서 安岳의 王陵이 조영되었기 때문에 이 墓는 실로 高句麗 古墳가운데서 규모가 크고 壁畵가 화려한 것이다. 이것은 地下의 宮殿을 의미하는 것으로 後室에는 시체를 안치하여 모든 방이 균형을 갖춘 것이라는 것이다. 壁畵의 모든 內容은 王의 生存時 生活을 집대성하여 놓은 것으며 美川王의 위엄과 그의 업적을 나타내어 지난날의 치욕을 씻으려 하였다는 것이다.

다섯째, 安岳地方이 樂浪 帶方의 故地라는 점에서 그 지역의 歷史的 遺物이 모두 中國의 것으로 이해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考古學的으로 보면 樂浪이 멸망된 313년 이후에도 5세기 초(404)까지도 벽돌무덤을 만든 遺民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漢의 유민세력이란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1962년 信川郡에서 長岑長 王卿의 무덤이 발견되었는바 벽돌에 새겨진 銘文에 의해서 248년에 축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墓制는 모두 벽돌이 아니고 천장은 高句麗式의 판돌 뚜껑으로 덮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3세기 전반기에 高句麗의 文化가 넓게 남쪽으로 퍼져간 증거가 된다.

여섯째, 安岳 3號墳의 築造年代는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이다. 年代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근거는 王母가 燕나라에서 돌아온 故國原王 25년 즉 355년 이전에 무덤의 공사가 끝났다고 보는 견해이다. 또 하나는 冬壽보다 2년뒤에 高句麗에 망명해온 宋晃을 燕에 보내 親善을 도모한 일이 있다. 이것은 王母가 돌아오기 6년전의 일이다. 지난날 시체를 찾아올 때처럼 일찍 王母를 모셔올 수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될것이다. 이것은 王母의 歸國에 앞서 父王인 美川王의 陵이 完成되었다는 의미일수도 있는 것이다. 이 해는 349년이므로 그 전에 王陵은 축조되었을 것이다. 만약에 王母가 돌아온 해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공사기간이 10년이 넘기 때문에 축조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다. 따라서 두번째 가능성인 349년 이전에 墓가 完成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後室 뒷벽의 짧은 기둥이 정확한 규격의 기둥이 못되는 것과 8각 기둥들과 고임돌들이 고르지 못한 것등은 공사기간의 제약때문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墨書銘文에 근거하여 安岳 3號墳은 357년에 冬壽가 죽은해 전후하여 축조되었다는[21]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冬壽가 죽기 10년전에 墓는 完成되었다는 것이다.

일곱째, 冬壽가 美川王陵에 墨書로 기록된 것은 故國原王때 무덤을 축조하거나 또는 美川王의 시체반환등의 일에 冬壽가 관여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이러한 추측이 가능하다면 冬壽의 위치는 어느정도 부각이 된다고 볼것이다. 다시말해서 冬壽가 美川王의 再葬問題에 관여하였다면 거기에는 高句麗的인 基本性格이외에 外來要素의 性格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安岳 3號墳의 構造形成이 遼東地方의 壁畵墓와 유사하다는 사실은 바로 이와같은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外來요소란 부분적인 것이고 基本은 高句麗의 傳統的인 墓制를 따르고 있다. 다만 遼東의 墓가 多室系統인 바 安岳도 그점에서 유사성이 있는 것이다.

여덟째, 美川王陵의 墨書銘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종의 落書라는 것이다. 墨書의 상태에 대하여는 누차 말해온 바 있어 더 논하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墨書가 쓰여질수 있는 가는 추정할 수가 있다. 즉 처음부터 계획에 넣고 쓴 글씨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하다면 후에 썼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王陵을 다시 열고 墨書를 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王陵의 公式的 開封은 後葬할때 뿐이다. 이때만이 글씨를 쓸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실지로 1949년 발굴시에 羨道를 따라 뒤에 다시 棺을 넣은 흔적이 있기 때문에 뒤에 公式的으로 王陵을 열었을 때 만이 유일한 기회가 되는 것이다. 墨書에 대하여 같이 王陵說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전주농은 落書로 보며, 주영헌은 王室에서 내려준 記念銘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글씨가 틀리고 정중하게 쓰지 않았다는 것은 非公式的인 절차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을 펴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더 지적할 일은 帳下督인 冬壽의 그림위에 쓰여진 墨書外에 맞은쪽에도 帳下督의 鮮明한 그림이 있고 그위에도 墨書의 흔적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墨書는 아주 의식적으로 지워버린 것이다. 주영헌은 자연히 물이 흐르는 통에 지워진 것이라고 하지만 밑의 그림이 아주 깨끗하게 보존된 것을 보면 그것은 일부러 지웠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과 연결시켜 冬壽의 墨書도 그와같은 성격의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아홉째, 冬壽는 69세에 죽은 것으로 기록되는데 主人公의 壁畵에 나타난 얼굴은 50전후로 대략 美

21) 전주농 1963, 〈同上論文〉 40. 김용준, 주영헌의 墓築造年代를 비판하고 있다.

川王의 生存 년령과 맞는다고 보고있다.

Ⅶ

美川王陵銘의 발설자인 박윤원은 그간 논의되어온 몇가지 점을 요약 정리하여 安岳3號墳이 美川王陵임을 논증하고[22]있다. 冬壽墓說의 부당성을 배격한 후 다음의 사항을 열기하고 있다.

첫째, 冬壽의 墨書는 그아래 帳下督과 관련된 것이며 이것이 冬壽와 연결되어 그의 墓로 된 것은 전적으로 잘못이다.

둘째, 冬壽가 한낱 亡命客으로 記室 帳下督등 정부 屬官들의 侍衛를 받는 등 王의 위의를 갖출수 없다.

셋째, 冬壽가 결국 都鄕侯에 지나지 않는만큼 四品職으로서는 3號墳의 主人公이 될수 없다.

네째, 行列圖에 보이는 〈聖上蟠〉이라는 깃발만 가지고도 王의 陵임을 알 수 있다.

다섯째, 冬壽의 墨書가 있는 벽 바른쪽 벽의 帳下督 人物圖위에도 墨書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는바 이것은 帳下督의 약력이 된다는 것이다.

여섯째, 무덤의 構造形式에 外來的 要素가 있다하여 冬壽墓라고 말할수 없다. 외래적 요소는 文化交流上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일곱째, 冬壽의 약력에서 樂浪相을 들어 능히 그 무덤을 축조하였다고 하였는데 相이란 地位가 대단한 것이 아니다.

여덟째, 당시의 정세로 보아 樂浪은 없어졌고 百濟가 강성한 때이며 高句麗가 南進策을 강화한 때이므로 冬壽가 安岳地方을 장악할 수가 없는 것이다.

위와같은 요점을 들어 冬壽墓說을 否認하고 三國史記등의 記錄에 의거 美川王陵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安岳 3號墳의 被葬者에 대한 몇몇 견해에 대하여 그 요점을 알아 보았다. 대체로 古墳發見 이후에는 冬壽墓說이 강세를 나타내었던 것은 그간의 사정을 검토하면 알수가 있다. 이러한 解釋은 매우 平面的인 각도에서 고찰하였기 때문인데 그와 같은 태도는 일찍이 우리나라도 같은 사정이었다. 그뒤를 이어 美川王陵說이 크게 대두하였던 것은 위의 論考를 통하여 쉽게 알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安岳 3號墳이 갖고 있는 歷史性이 너무나 크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지만 그렇기때문에 正式報告書에서 조차도 主人公에 대하여 冬壽說을 내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儀式절차등이 王陵에 해당한다고 보았던[23] 것이다. 여하튼 安岳古墳에 대한 보다 철저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美川王陵說이 우위를 점하게 되었고 결국 美川王陵에 관한 單行本이 출간하게[24] 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우리 學界에는 冬壽墓說만이 극히 단편적으로 소개되었을 뿐 그 후의 美川王陵說은 전혀 이해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몇가지 抄錄해서 이를 소개한 것이다.

---

22) 박윤원, 1963. 〈안악 제3호분은 고구려 미천왕능이다〉《고고민속》 2.

23) 《安岳 3號墳 發掘報告》 17, 23

24) 이 册은 筆者가 하와이 大學의 Sinclair Library에서 본것이다.